

여고생의 피임지식과 성 행태

이금덕¹ · 방경숙²

아주대학교병원 간호사¹,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 부교수²

A Study on Contraception Knowledge and Sexual Behavior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Lee, Keum-Deok¹ · Bang, Kyung-Sook²

¹Nurse, Ajou Medical Center, ²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contraception knowledge and sexual behavior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382 female high school students from one academic and one vocational school. Data was collected from October to November, 2008 using self report questionnaire. **Results:** Knowledge on contraception was 5.52 in maximum 14 point scale. Major information source for sexual matters was peers such as friends or sisters. Perception on sexual behavior was different according to major information source. Fifty five percents of students thought that kiss can be permitted, and regarded sexual behavior as natural development. 3.4% of participants had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Conclusion:** It is indicated that perception on sexual behavior can be shaped according to correct information and positive attitude on natural sexual development by health profession. Also, education on contraception would be included in sex education to reduce teenage pregnancy.

Key Words: Contraception, Sex, Female, Student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성적 자극과 성의 상품화로 인한 성 문화의 범람에 10대 청소년들이 무방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현 사회체계에서의 성가치관의 혼란과 매스 미디어의 성정보화 범람 및 왜곡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 개방의 풍조, 왜곡된 성지식을 형성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각종 청소년의 성범죄, 미혼모 증가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위험이 크다.

청소년의 성 행태에 대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음란물에 노출된 후 많은 청소년들이 주의집중이 안되거나 성충동을 느끼고, 또는 죄책감을 느끼는 등(Cho & Kim, 2004)의 부정적

인 경험을 하며, 또한 청소년 중 성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경험자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거의 피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원치 않는 임신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Park et al, 1998). Mo, Oh와 Cho (2006)의 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의 8.1%가 성경험이 있었으며 상대 여성에게 임신이나 유산을 시킨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Chang 등 (2001)은 4.5%의 대상자가 성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Choi, Kim과 Oh (2004)의 연구에서도 키스나 애무를 한 경험은 32.0%, 성교 경험은 7.0%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성교 경험이 있는 44명 중 14%인 6명이 임신경험이 있어 10대를 대상으로 한 피임 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비록 아직은 서구사회에 비해 10대의 임신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하여도 앞으로 국내에서도 10대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주요어: 피임, 성, 여고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Bang, Kyung-Sook,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03 Daehak-ro, Jongno-gu, Seoul 110-799, Korea, Tel: 82-2-740-8819, Fax: 82-2-765-4103, E-mail: ksbang@snu.ac.kr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2009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한 것임.

투고일: 2011년 12월 9일 /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13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20일

가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성 풍조의 변화와 더불어 학교에서는 성 교육을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10대들의 성 경험이나 임신율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0대들은 성심리와 이성교제에 대한 성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10대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므로, 10대들의 임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10대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동기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Wang, Wang, & Hsu, 2003).

Wang 등(2003)의 연구결과 피임지식은 여고생의 임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피임교육을 받은 10대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임신율이 낮음을 보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 10대 여학생들의 피임지식은 15점 만점에 3.8점으로 매우 낮다는 보고가 있다(Choi et al., 2004). 따라서 성교육 내용 중 피임에 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바르게 교육되고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며 10대들이 가장 희망하는 성교육 제목 역시 피임과 임신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10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여고생들의 피임지식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피임지식은 성지식에 일부 포함된 문항을 통해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10대들의 정확한 성지식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피임지식과 성 행태 및 관련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여고생의 피임지식 정도를 파악한다.
- 여고생의 성 행태를 파악한다.
- 대상자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 성 행태의 차이를 비교한다.

3. 용어정의

1) 피임지식

피임지식이란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인위적으로 임신을 피

하는 방법에 관련하여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이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Kim (2001)이 개발한 피임지식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피임지식을 묻는 총 14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성 행태

성 행태란 개인의 성과 관련된 행위로 본 연구에서는 키스나 애무, 성교 등의 행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키스나 애무 유무, 임신유무와 첫 성교 나이를 묻는 총 7문항의 도구로 측정된 것을 말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고생의 피임지식 및 성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경기도 소재 2개 고등학교에서 1, 2학년 각각 3학급씩을 선정하여 총 12학급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총 4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430부가 회수되었고 이 가운데 부실한 응답자 48명을 제외한 총 382명을 최종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 특성 5문항, 피임도구 사용과 효과 등을 묻는 피임지식 14문항, 그리고 키스나 애무, 성교, 임신유무와 첫 성교 나이 등 성 행태와 관련된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임지식과 관련된 도구는 Kim (2001)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한 총 14개 문항으로 피임지식과 관련된 진술문에 대하여 ‘맞다’는 1점, ‘틀리다’와 ‘모르겠다’는 0점으로 처리하여 총 14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지식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성 행태는 본 연구자가 키스나 애무, 성교 등의 행위에 대한 경험, 임신 경험, 첫 성교 나이를 묻는 총 7문항을 만들어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내용이 타당함을 확인받은 후 사용하였다.

4. 자료수집

경기도 소재 2개 고등학교로부터 자료수집 허가를 받은 후 본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여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사를 통하여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자료수집을 하는 것이 학생들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교사에게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게 한 후 설문지를 받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에의 참여 여부를 자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 참여자의 익명을 지킬 것을 대상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다. 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총 440부중 430부가 회수되었다. 이 가운데 부실한 응답자 48명을 제외한 총 382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10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피임지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성 행태는 빈도와 백분율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여고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 성행태의 차이는 χ^2 -test,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성교육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301명(78.8%)으로 매우 많았으며,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대부분인 361명(94.5%)이 받은 경험이 있었다. 주요 성 정보 출처로는 '친구, 자매'를 통해서가 157명(41.1%)으로 가장 높게 차지했으며 현재 학교생활 만족도는 '좋다'가 303명(79.2%)으로 대부분의 대상자가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피임 지식

피임 지식에 대한 14문항에 대한 평균은 5.52점이었으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8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Type of school	Academic tract	194 (50.8)
	Vocational tract	188 (49.2)
Grade	1	197 (51.6)
	2	185 (48.4)
Parent's marital status	Married	329 (86.1)
	Divorced	31 (8.1)
	Remarried	8 (2.1)
	Separation by death	14 (3.7)
Religion	Have	187 (49.0)
	None	196 (51.0)
Sexual education at home	Have	81 (21.2)
	None	196 (51.0)
Sexual education at school	Have	361 (94.5)
	None	21 (5.5)
Major information route on sex	Parent	53 (13.9)
	Friend & sibling	157 (41.1)
	Teacher	121 (31.7)
School satisfaction	Good	303 (79.2)
	Not good	79 (20.8)

'먹는 피임약은 피임해야 하는 며칠간만 먹어도 효과가 있다', '자궁 내 장치(루프)는 성병이나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 '배란일은 월경시작 예정일로부터 약 14일 전이다' 등 5개 항목은 정답률이 50% 이상이었으나 나머지 9개 항목은 정답률이 50% 이하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자궁 내 장치(루프)는 추후관리가 필요 없는 편리한 방법이다'는 정답률이 8.9%로 가장 낮았다(Table 2).

3. 대상자의 성 인식 및 성 행태

1) 대상자의 성 행태

대상자의 성 행태를 살펴보면, 이성 친구가 있는 대상자는 75명(19.6%)이었으며, 신체접촉 허용수준은 '키스까지'가 210명(55.0%)으로 가장 많았다. 성 행위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이라 본다'가 170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3명(3.4%)이었으며, 피임을 하는 경우는 9명(2.4%)이었다(Table 3).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 행태 허용수준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 행태 허용수준을 살펴보면, 가정

Table 2. Correct Answer Rates on Contraceptive Method (N=382)

Items	Correct n (%)
Condom use	74 (19.4)
Oral pill 1	112 (29.3)
Oral pill 2	195 (51.0)
Intra uterine device 1	34 (8.9)
Intra uterine device 2	245 (64.1)
Ovulation	221 (57.9)
Emergency contraception	109 (28.5)
Ovulation period	48 (38.7)
Sitz bath after intercourse	246 (64.4)
Coitus interruptus	156 (40.8)
Artificial abortion	201 (52.6)
Menstruation period	76 (19.9)
Sperm activity	144 (37.7)
Just after menstruation period	148 (38.7)

Table 3. Perception and Experience in Relation to Sexual Behavior (N=382)

Variables	Categories	n (%)
Having a friend of the opposite sex	Have	75 (19.6)
	None	307 (80.4)
Perception on the permission of sexual behavior	No physical contact	33 (8.6)
	Holding hands	32 (8.4)
	Hug	94 (24.6)
	Kiss	210 (55.0)
	Sexual intercourse	13 (3.4)
Perception on the sexual behavior	Disgraceful	25 (6.5)
	Natural development	170 (44.5)
	Sacred	18 (4.7)
	Never thought of it	120 (31.4)
	Don't know	49 (12.8)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Have	13 (3.4)
	None	369 (96.6)
Age of sexual intercourse	10~15	2 (0.5)
	16~18	11 (2.9)
	No experience	369 (96.6)
Contraception	Yes	9 (2.4)
	No	272 (97.6)

에서의 성교육 경험($p=.006$), 이성 친구 유무($p<.001$), 인문계와 실업계의 학교형태($p<.001$)에 따라 대상자들의 신체접촉 허용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 행태에 대한 인식 비교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 행태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주요 성 정보 출처($p=.024$)와 학교형태($p=.025$)에 따른 성 행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여고생들의 피임지식, 성 행태를 파악하고 상호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여고생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가정에서의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대상자는 78.8%로 Kye (1998)의 연구에서 77.9%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며 10여년 전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95.5%로 학교에서는 대부분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1)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경험을 조사한 결과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94%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비율이다.

성교육은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어느 단계에서나 중요하지만 여고생의 성교육은 여고생의 여성으로서의 자아개념이 확립되고 신체적으로 성숙이 완성되는 시기로서(Maeng, 2005), 성인으로서의 성장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를 배태시켜 나가기 위한 “어머니의 몸”으로서의 변화를 수반하는 정신적 준비기에 해당하는 만큼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고생을 위한 성교육은 여성 스스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알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함과 더불어 무분별한 성행동을 줄이고 성 관련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함으로써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다음 주요 성 정보 출처는 ‘친구, 자매’가 41.1%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선생님’이 31.7%를 차지했는데, Kye (1998)의 연구에서는 ‘선생님’이 59.8%로 가장 많았고 ‘친구’는 35.2%를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Cho와 Kim (2004)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성 관련 주요 정보원은 인터넷이 47.1%, 친구가 38.0%로 이 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친구나 대중매체를 통해 올바르게 못한 성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는 동성의 친구관계가 중요하지만 이성관계가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다. 여고생들이 생각한 신체접촉 허용수준은 ‘키스’까지 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55.0%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Ministry of Education &

Table 4. Level of Permission on Sexual Behavior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382)

Variables	Categories	No physical contact	Holding hands	Hug	Kiss	Sexual inter-course	χ^2	<i>p</i>
		n (%)	n (%)	n (%)	n (%)	n (%)		
Sex education at home	Yes	8 (9.8)	15 (18.5)	17 (21.0)	38 (47.0)	3 (3.7)	14.593	.006
	No	25 (8.3)	17 (5.6)	77 (25.7)	172 (57.1)	10 (3.3)		
Sex education at school	Yes	31 (8.5)	30 (8.3)	90 (25.0)	200 (55.4)	10 (2.8)	8.286	.082
	No	2 (9.5)	2 (9.3)	4 (19.0)	10 (47.8)	3 (14.2)		
Major information source	Parents	6 (11.3)	8 (15.1)	14 (26.4)	24 (45.3)	1 (1.9)	18.227	.109
	Teacher	11 (9.2)	7 (5.8)	41 (33.9)	59 (48.7)	3 (2.5)		
	Peer	12 (7.6)	14 (9.0)	27 (17.2)	96 (61.1)	8 (5.1)		
	Media	4 (7.8)	3 (5.9)	12 (24.0)	31 (60.4)	1 (1.9)		
Having a friend of the opposite sex	Have	10 (6.3)	4 (2.5)	31 (20.0)	101 (63.6)	12 (7.6)	33.216	< .001
	None	23 (10.2)	28 (12.5)	63 (28.1)	109 (48.8)	1 (0.4)		
Religion	Have	16 (8.6)	20 (10.7)	51 (27.2)	95 (50.8)	5 (2.7)	5.143	.273
	None	17 (8.7)	12 (6.2)	43 (22.1)	115 (59.6)	8 (4.1)		
Grade	1	17 (8.6)	14 (7.1)	49 (25.0)	110 (55.7)	7 (3.6)	0.878	.928
	2	16 (8.6)	18 (9.7)	45 (24.4)	100 (54.1)	6 (3.2)		
Type of school	Academic	7 (3.6)	18 (9.3)	68 (35.0)	95 (49.0)	6 (3.1)	32.101	< .001
	Vocational	26 (13.8)	14 (7.5)	26 (13.8)	115 (61.2)	7 (3.7)		

Table 5. Perception on Sexual Behavior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382)

Variables	Categories	Disgraceful	Natural	Sacred	Never thought	Don't know	χ^2	<i>p</i>
		n (%)	n (%)	n (%)	n (%)	n (%)		
Sex education at home	Yes	5 (6.1)	37 (45.8)	5 (6.1)	26 (32.1)	8 (9.9)	1.232	.873
	No	20 (6.6)	133 (44.2)	13 (4.3)	94 (31.2)	41 (13.7)		
Sex education at school	Yes	25 (6.9)	163 (45.1)	16 (4.4)	114 (31.6)	43 (12.0)	7.520	.111
	No	0 (0.0)	7 (33.3)	2 (9.5)	6 (28.6)	6 (28.6)		
Major information source	Parents	3 (5.7)	24 (45.2)	1 (1.9)	20 (37.8)	5 (9.4)	23.407	.024
	Teacher	11 (9.1)	38 (31.4)	5 (4.1)	46 (38.0)	21 (17.4)		
	Peer	8 (5.2)	79 (50.3)	12 (7.7)	42 (26.8)	16 (10.1)		
	Media	3 (5.9)	29 (56.9)	0 (0.0)	12 (10.0)	7 (14.3)		
Having a friend of the opposite sex	Have	8 (5.0)	81 (51.3)	10 (6.3)	44 (27.9)	15 (9.5)	8.593	.072
	None	17 (7.6)	89 (39.7)	8 (3.6)	76 (34.0)	21 (11.2)		
Religion	Have	14 (7.5)	88 (47.0)	7 (3.8)	57 (30.5)	5 (2.7)	2.594	.628
	None	11 (5.6)	82 (42.1)	11 (5.6)	63 (32.3)	28 (14.4)		
Grade	1	11 (5.6)	88 (44.7)	11 (5.6)	57 (28.9)	30 (15.2)	3.857	.426
	2	14 (7.6)	82 (44.3)	7 (3.8)	63 (34.0)	19 (10.3)		
Type of school	Academic	20 (10.3)	88 (45.4)	10 (5.2)	55 (28.3)	21 (10.8)	11.176	.025
	Vocational	5 (2.7)	82 (43.6)	8 (4.2)	65 (34.6)	28 (14.9)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1)에서 보고한 52.4%와 비슷한 결과이며 Cho와 Kim (2004)의 연구에서의 37.2%보다는 높은 비율이다. 특히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신체적 접촉 허용 수준을 키스나 성관계까지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성친구가 있더라도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고 학생 수준에서의 건전한 이성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성 행태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4.4%로 가장 높게 차지하여 성 행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그렇지만 성 행태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는 경우도 31.4%를 차지해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 행태에 대한 의식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에서의 성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성을 보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어려서부터 성을 죄악시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는 3.4%였는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1)에서 보고한 10%보다는 낮았다. Kang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이성교제를 하는 청소년의 68.8%가 성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의식 함양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의 1개도에 분포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도시를 포함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경우 성행위와 성관계 경험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교육에 대한 교육 경험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성지식 14문항에 대한 평균은 5.52점이었으며 인문계와 실업계의 학교 유형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타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피임지식만을 측정된 연구를 찾아 볼 수 없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는 '콘돔을 사용할 때는 콘돔 끝을 비틀어 공기를 뺀 후 사용한다', '먹는 피임약은 복용하지 못한 경우, 즉시 바로 먹고 다른 피임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궁 내 장치는 시술 후 추후관리가 필요 없는 편리한 방법이다', '응급피임법은 성교 후 2일 이내 실시해야 효과가 있다', '질 분비물이 많아지고 맑아지는 때는 배란기이다', '질외사정을 하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 '출산 후에 월경이 시작 되지 않았더라도 임신 될 수가 있다', '정자가 여성의 몸에 살아있는 기간을 사정 후 약 48~72시간이다', '월경이 끝난 직후는 임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안전한 기간이다'라는 항목에 오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피임지식을 따로 측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이 성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또한 피임 지식 중 자궁 내 장치, 성관계 후 임신 피하는 방법 등은 지식 점수가 다소 높았으나 월경 주기법에 대한 지식 점수는 다소 낮게 나와 임신이 언제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지식은 여고생의 임신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미혼모 시설 입소자 중 10대 미혼모의 비율은 50% 이상이며 미혼모가 되는 주된 이유는 임신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늦었기 때문이다(Yoo, 2003) 성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고생들의 성교육 내용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올바른 피임지식은 여고생의 임신을 예방하는 데 다소 개선이 되리라 사료된다. 또한 인공중절에 대해서도 혼인 전에는 언제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43%에 이르고 있어(Yang, 2004)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청소년 범죄 및 상담실에 접수된 청소년들의 성문제의 실태를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며 이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성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정에서의 부모의 관심과 부모-자녀간의 열린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올바른 성 윤리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어려서부터 성에 대해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0대 청소년의 성경험 및 임신은 서구 문화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중점적인 문제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피상적이고 지루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성교육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앞으로의 방향을 세워야 할 때이다. Kim과 Han (2005)은 학교에서 행하는 성교육에 대한 요구도도 높으므로 충분한 정보와 지식 제공, 성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함양, 학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사의 상담 태도 정립, 내담자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의 확립을 바랐던 학교 성교육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획일화된 성교육보다 학교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는데, 솔직한 대화로 부모와 교사는 자녀와 학생에게 신뢰감을 바탕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비밀리에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여고생들의 성고민이나 성문제를 부모나 선생님께 털어 놓고 해결할 수 있는 분

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를 볼 때 대상자에게 맞는 적당한 피임지식을 교육하는 것이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교육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1개 도시에 분포한 2곳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전체 여자 고등학생의 자료로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학교에서 교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개인적 비밀 보장이 어려워 자료의 응답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고생들의 피임지식, 성 행태를 파악하고 상호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여고생들의 올바른 피임 지식을 위한 간 호중재 개발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로 여자 고등학교(실업계, 인문계) 1, 2학년 382명을 대상으로 피임지식과 성행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 가정에서의 성 교육이 부족한 상태이며, 주요 성 정보 출처는 친구, 자매 등 또래였고 이에 따른 성 행태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시기의 친구 관계가 중요할 뿐 아니라 친구들 사이의 잘못된 정보교환이 아닌 체계적인 가정과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라 하겠다.

대상자의 피임지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는 매우 일부에 국한되었으나 신체접촉 허용 수준은 키스까지 허용하겠다는 경우가 가장 많아 상당히 개방적인 성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대상자의 피임지식 응답율이 높고 학교 형태에 따라 신체접촉 허용수준, 성 행태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으므로 학생 특성에 맞는 성 교육과 피임지식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REFERENCES

- Chang, S. B., Kim, S. Y. J., Han, I. Y., Park, Y. J., Kang, H. C., & Lee, S. K. (2001). Sexual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of teenage girl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5), 921-931.
- Cho, M. O., & Kim, J. I. (2004). Relationship among sexual consciousness,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and sexual experience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Nursing*, 10(1), 59-65.
- Choi, S. Y., Kim, Y. H., & Oh, H. S. (2004). A study on sexual behavior, pregnancy and contraception knowledge in female adolescent,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Nursing*, 10(1), 42-50.
- Kang, H. S. (2006). Perceptions of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among young Korean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Nursing*, 12(2), 124-131.
- Kim, M. J. (2001). A structural equation model explaining contraception behaviors of married Korean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Nursing*, 7(1), 141-156.
- Kim, S. W., & Han, H. R. (2005). An analysis on the practice of middle school sexual education and the demand of sexual education by sex, *Education & Science Research*, 36(1), 125-141.
- Kye, S. Y. (1998). *The study of change in knowledge and attitude as the result of sex education: Focusing on the 1st grade students in girl's middle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Maeng, H. J. (2005). *A study on the effects of sexual education program through video watching on schoolgirl's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sex*, Unpublished master's thesis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1). *High school sex education need survey*,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Mo, H. S., Oh, H. E., & Cho, E. A.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behavior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sexual experience in male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Nursing*, 12(3), 210-220.
- Park, Y. J., Ku, P. S., Kim, T., Shin, J. C., Lee, C., Moon, J., et al. (1998). Pregency, abortion and delivery rates for Korean teenag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8(3), 573-582.
- Wang, R. H., Wang, H. H., & Hsu, M. T. (2003).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 pregnancy-A sample of Taiwanese female adolescents, *Public Health Nursing*, 20(1), 33-41.
- Yang, S. Y. (2004).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eenager's abortion and the better ways of sex education: Targeted at middle and high schoolers i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Yoo, S. M. (2003). *A study on unwed teenage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